

# 동아시아의 함정건조 경쟁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 기술정보센터

해군대령(예) 차 대 현 · 위촉연구원 김 운 주

이 기사는 일본의 군사평론가 오카베 이사쿠가 일본의 군사전문지 「世界の艦船」(2010.9월호)에 기고한 글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일본인의 시각에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정리함에 따라 독자와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원문에 충실하였는 바, 본 기사는 국방기술품질원이나 편집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냉전 종식과 함정 건조 경쟁 시작

냉전시대 말기인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인도의 자체적인 호위함 건조가 시작되었고, 중국이 문화혁명시대에 건조 착수한 Xia급 탄도미사일핵잠수함과 Han급 공격핵잠수함의 건조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도 1980년대였다. 이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적·공업적 기반을 가지게 된 것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군들은 이전까지는 주로 유럽의 중고 함정을 도입·운용해 왔으나, 이 시기부터 신형 함정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1980~90년대에 소련/러시아로부터 Kilo급 잠수함을 구입하고 독일로부터 209/1500급 잠수함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209급 후속함 2척은 자체 건조하였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88함대의 정비가 진행 되는 가운데 Hatsuyuki급 호위함 및 Asakiri급

호위함이 건조되었으며, 1988년에는 첫 번째 이지스 호위함인 Kongou의 건조가 계획되었다.

중국과 한국 및 인도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규모가 크고, 발전된 성능의 함정을 건조하게 되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Kilo급 (877EKM) 잠수함을 구입하는 한편, Luhu급 구축함과 Jiangwei급 호위함을 자체 건조하였으며, 인도는 1980년대 말 소련/러시아의 Udaloy급 구축함을 기반으로 설계한 Delhi급 미사일 구축함 건조에 착수하였다. 또한 대만은 1990년대에 해군 근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의 Oliver Hazard Perry급 미사일 호위함과 유사한 함정을 자체 건조하는 한편, 프랑스로부터 La Fayette급 스텔스 호위함을 구매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스웨덴으로부터 Sjoormen급 중고 잠수함을 구입하여 이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잠수함 보유국이 되었으며,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Jianghu I 급과

Naresuan급 호위함을 도입하는 등 신형 함정 조달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태국이 경항공모함 Chakri Naruebet함을 취역시킴으로써 동남아시아 최초의 항공모함 보유국이 되었다. 말레이시아도 이탈리아에서 Laksamana Hang Nadim급 초계함 4척을 구매했다.



그림 1. 일본의 Osumi급 수송함

일본은 1990년대에 Murasame급 호위함과 Oyashio급 잠수함이 계획되었다. 이 시기에 해상자위대는 전통(全通) 갑판형 수송함 Osumi함도 계획하였다. 후에 Osumi함은 외국의 재난구호 활동에 투입됨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외 활동이 가능한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1년 냉전 종식으로 동아시아-인도양의 군사력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국가의 해군 함정 정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냉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양극의 균형을 변화시킬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중국 해군의 주요 함정도 구형 함정뿐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초 강대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미국의 해양 패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각국은 각자의 필요와 정책에 따라 해군력 증강 및 현대화가 가능해졌다. 이는 국지적인 해군력

균형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은 동중국해-남중국해-태평양에서의 해양권의 보호를 지향하게 되어 1997년부터 '제1·2 열도선' 개념이 등장하였다. 때마침 1996년 대만의 총통선거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훈련을 실시하여 대만 독립파에 압력을 가하려 했으나,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대만 근해에 급파함으로써 조기에 훈련을 끝내야만 했다. 이 사건은 중국 해군으로 하여금 미 항공모함 강습단의 기동력과 위력을 통감하게 한 사건으로 이후 중국 해군의 전략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력·공업력이 더욱 신장됨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자원 및 공업원료 수입, 공산품 수출을 위한 해상통상로(SLOC)의 중요성도 높아져, 중국의 해양권의 범위는 SLOC가 통과하는 인도양까지로 확대되었다.

중국 해군은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의 Sovremenny급 미사일 구축함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Luyang I·II급 미사일 구축함 및 Jiangwei I·II급 호위함 등 신형 수상함을 잇달아 건조하였다. 인도양에서의 지역 대국을 지향하는 인도도 개량형 Godavari급 및 러시아의 Krivak III급을 근간으로 한 Talwar급 미사일 호위함을 취역시켰다. 한편, 일본은 Atago급 이지스 호위함과 1만톤이 넘는 헬기탑재호위함 Hyuga함이 계획되었다.

## 협력과 경쟁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냉전시대 말기에

조짐을 보였던 해군력 증강 및 함정 정비가 냉전 후 이 지역의 경제력·공업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가속화되어 단순히 서방 국가나 러시아로부터의 함정 수입에 그치지 않고, 외국 설계 함정의 라이선스 건조 및 자체설계 함정도 건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 냉전 후로 일컬어지는 2010년대 초반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해군력 증강과 함정 건조 붐은 냉전 후에 생긴 ‘힘의 공백’ 때문만이 아니라 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에 걸친 지역은 미 해군 제7함대의 작전 구역과 중복된다. 미군은 서태평양-아시아-인도양에서 괌과 일본 본토, 오키나와, 한국,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거점으로 장거리항공부대, 전술항공부대 및 해병대를 포함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적어도 1개의 항모강습단 또는 신속대응 상륙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필요시 항모강습단을 증강시킴으로써 아시아-인도양에서 미국의 해양패권은 흔들림이 없다. 따라서 중국을 제외한 각국의 해군력 증강은 미국의 해양패권 아래에서 각자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 행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 활발히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정기적으로 연합 훈련을 하는 등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다. 예컨대, 태국의 Cobra Gold 훈련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가 참가하는 CARAT (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훈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만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인도 해군이

일본 근해에서 Malabar 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중국에 기항하는 한편, 러시아 해군과도 훈련을 실시하였다. 인도 해군과 러시아 해군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번의 Indra 연합훈련을 실시하였고, 2010년 5월에는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순양함 Moskva와 인도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Rajput가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도 태국과 대테러작전 및 구난 등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에도 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Cobra Gold에 일본이 참가하는 등 이 지역의 연합훈련 네트워크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는 협력관계뿐 아니라, 긴장이나 충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상이한 이해관계도 존재한다. 영토·영해 문제로는 센카쿠열도 문제,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문제가 있다. 긴장 상태나 잠재적 충돌 가능성으로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대만해협과 인도·파키스탄이 있다. 동아시아-인도양에 걸친 각국의 해군력 증강 배경에는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도 내재되어 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해군력 증강 및 활발한 함정 건조 요인으로는 중국 해군의 근대화 및 증강을 들 수 있다. 냉전시대에 연안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Brown Water Navy’ 수준이었던 중국 해군은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양해군인 ‘Blue Water Navy’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병력을 증강하고 현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 범위도 넓혀갔다. 2010년 4월에는 10척이나 되는 중국 함대가 오키나와 근해를 통과하여 태평양에 진출하기도 했다. 인도양에서도 안다만 군도에 인접한 미얀마의 코코섬에 중국이 감시소를 설치했다는 설도 있다. 최근

중국 해군은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퇴치작전에 구축함과 보급함 및 상륙함을 파견함으로써 원거리 해역에 장기간 해군력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인도 해군도 2008년에 일본 및 중국, 러시아에 함대를 파견하고 오키나와 근해에서 Malabar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에 함정을 파견하는 등 인도양에서 지역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 중국의 신조함

동아시아-인도양 국가들의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함정건조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이다. 1980년대부터 중국이 항공모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며, 2008년 말~2009년 초에 걸쳐 일본의 대중매체가 보도한 바로는 2015~20년경에 4만~6만톤급 항공모함 2척을 취역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0년 중반까지 항공모함의 건조가 개시되었다는 징후는 보도되지 않고 있어, 2020년 이전에 항공모함 취역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미완성 항공모함인 Varyag는 훈련용 항공모함으로 완성시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진전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항공모함 탑재기로 러시아의 Su-33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수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중국의 항공모함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해군은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와 미사일 수직발사시스템(VLS)을 탑재하여 함대

방공능력을 보유한 Luyang II급 미사일 구축함 2척과 VLS를 장착한 Jiangkai II급 미사일 호위함 4척을 건조하고, 러시아로부터 Sovremenny급 구축함 4척을 도입함으로써 항공모함강습단을 구성하는 데에 적합한 성격의 함정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듯하다.



그림 2. 중국의 Fuchi급 보급함

최근 중국 해군의 신조함 가운데 주목받는 함정은 2005년에 2척이 취역한 Fuchi급 보급함이다. 만재배수량이 2만 2,000톤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현재 약간 노후한 Fuqing급 보급함 2척과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Qinghai-Hu함을 포함하여 총 5척의 보급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해, 동해, 남해 등 3개 함대에 배치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중국이 항모강습단 편성을 목표로 한다면 보급함의 추가 건조가 필요할 것이다.

2008년 당시까지 LST급 상륙함만 보유했던 중국 해군은 대형 상륙함 Kunlunshan(LPD 998)함을 취역시켰다. 이 함정이 남해함대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대만에게는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Kunlunshan함이 군사력 투사능력 보유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중국 해군의 능력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대만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국 해군은 잠수함 건조도 가속화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4척의 Song급 잠수함을 취역시킨 데 이어 신형의 재래식 잠수함 Yuan급이 건조되고 있으며, Shang급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이 2006년부터 취역을 개시 하였고, Jin급 탄도미사일핵잠수함(SSBN)도 건조되고 있다. Jin급은 사정거리 8천km의 SLBM Julang-2를 12발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중국 인근 해역에서 미 본토 공격도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핵잠수함 및 재래식 잠수함은 미 항모강습단에게는 수상함 이상의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의 주변국들은 핵잠수함에 대한 외해 대잠작전 및 재래식 잠수함에 대한 연안 대잠 작전 등 광범위한 대잠능력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 중국의 주변국과 동남아시아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은 고속 미사일정 외에 신형 함정 건조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아시아-인도양 지역에서 미 해군과 가장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해에서의 대잠·대공 능력과 기뢰전·수중전 능력을 충실히 쌓아오고 있다.

최근에는 AIP 잠수함인 Soryu급의 건조 및 신형 호위함 19DD 계획 등 착실히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통 갑판형 헬기탑재 호위함인 신형 22DDH는 외해에서 대잠작전 플랫폼 및 지휘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송능력도 구비하여 역외(域外)의 재난구호나 인도적 지원 임무에도 투입될 수 있다.



그림 3. 일본의 22DDH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프랑스-스페인이 공동 건조한 Scorpene급 잠수함을 도입하였으며, 독일로부터 MEKO 100급 초계함을 구입하고 일부는 자국에서 건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서 설계한 Diponegoro급 초계함을 자국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Dr. Soeharso급 상륙함(LPD)을 도입한 후 동급 함정의 자국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6척의 Formidable급 스텔스 호위함을 건조했으며, 스웨덴과 Vastergotland급 잠수함 2척의 구매를 협의 중이다.

동남아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보유국인 태국 해군은 1990년대에 활발하게 함정건조를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뚜렷한 건조계획이 없다.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Knox급 호위함은 이미 함령이 40년에 가까우며, 중국제 Naresuan급 및 Chao Phraya급 호위함은 선체 구조에 문제가 발견되어 새로운 수상전투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각국 해군은 중국과 인도의 해군력 증강 사이에서 남중국해-타이만-말라카해협 등 자국 주변 해역 방어 및 경비를 목적으로 함정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 인도양 국가들의 함정 건조 실태

인도양의 지역 대국인 인도 해군도 항공모함 건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번함인 Vikrant는 이미 2009년 2월에 기공되어, 2015년에 취역이 예정되어 있다. 2번함인 Viraat도 2011년에 건조 착수할 예정이다. 인도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Kiev급 항공모함인 Admiral Gorshkov를 구입하여 대대적인 개조 후 Vikramaditya라는 함명으로 재취역시킬 계획이었으나, 비용 증가 및 개조공사의 난항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림 4. INS Vikrant 함모 개념도

자체 건조 중인 항공모함 Vikrant는 만재 배수량 4만 5,400톤으로 탑재 항공기는 약 30대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전투기는 12대 정도로 추정된다. 인도 국산 경전투기 LCA의 함상형이나 MiG-29K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F-35B 혹은 C를 인도 해군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 해군은 만재 배수량 5,300톤의 Shivalik급 스텔스 미사일 호위함을 최대 12척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여기에 배수량 7,000톤의 Kolkata급 미사일 구축함 3척을 건조하고 있어, 장래 함모전투단 구성을 의식한

건조가 계획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인도 해군은 핵추진잠수함의 자체 건조도 진행하고 있는데, 2009년 7월 첫 번째 탄도미사일핵잠수함(SSBN)을 진수시킨 바 있다. 이 잠수함은 수중배수량 7,000톤, 수중속력 24노트이며, SLBM 12발을 탑재할 수 있다. 이 핵잠수함이 완성되면 인도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6번째 SSBN 건조·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재래식 잠수함으로 Scorpene급 6척의 건조도 계획하고 있어, 해군력 증강 속도가 중국에 필적할 만하다.

인도와 인접국인 파키스탄은 중국에 Jiangwei II급 호위함의 확대 개량형 2척을 발주하였으며, 2척을 자국에서 건조하려 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2008년에 걸쳐 프랑스의 Agosta 90B급 잠수함을 3척 수입하였으나, 파키스탄의 함정건조는 인도 해군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증강에 비교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는 1989년 중국으로부터 Jianghu I급 호위함인 Osman을 도입하였으며, 2001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호위함 Bangabandhu함을 도입하였다. 그 외에 초계정과 경비정만 보유한 스리랑카가 있으나, 인도양에서는 인도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띈다.

한편, 러시아도 프랑스에서 도입할 예정인 Mistral급 상륙함을 태평양함대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러시아 해군이 아시아-인도양에서 다시 위력을 발휘할 날이 온다면, 이지역의 해군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참고자료

世界の 艦船 2010.9월호